

#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차남 임종훈... 경영 정상화 시급

##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모친 송영숙 회장과 공동대표 임종윤, 한미약품 대표 복귀 전망 장녀 임주현 전 부회장 거취 불투명 OCI 통합 불발에 상속세 마련 시급 총 5400억 중 2700억 가량 남아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4일 이사회를 열고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차남인 임종훈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 대표이사인 모친 송영숙 회장은 임 대표와 공동 대표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대표를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리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모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오른쪽)와 임종윤 사내이사.

/뉴시스

회장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총에서 이들의 이사회 진입과 함께 그룹 통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주총에선 임종윤·종훈 사내이사를 포함해 이들이 추천한 5명의 이사 선임 주주 제안이 통과됐다. 형제는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해, 경영권 교체 후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주총 전 각 한미사이언스 사장,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임종훈 대표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경영복귀에 성공한 이후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복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주총 표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형제의 경영복귀가 가시화 되면서 향후 한미약품 그룹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미-OCI 통합 불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간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2020년 8월 임성기 전 회장의 타계 후 오너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5400억원. 지금까지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납부한 후 2700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OCI와의 통합 역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하지만 통합이 불발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낼 재원이 있다. 상속세 재원이 문제 되고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다면 경영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경영복귀 이후 1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오너 일가의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기업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하는 일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에 모친인 송영숙 회장·임종훈 신임 대표의 공동 대표 체제가 논의된 것 역시 가족간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 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던 장녀 임주현 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거취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향후 대표이사 교체로 인한 경영권 교체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그룹을 떠난 임원들을 불러들여 경영진을 재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윤·종훈 전 사장은 지난 주총에서 "회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형제, 가족이 다 같이 합쳐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CJ푸드빌, 작년 영업이익 74% '쑈쑈'... 역대 최대실적

영업익 435억, 매출 8447억 11% ↑ 전체 영업익 중 60% 해외서 거둬 美 법인 6년째 흑자, 영업익 179% ↑ 빙스·더플레이스 등 외식 수익 개선

CJ푸드빌이 글로벌 F&B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흑자구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J푸드빌은 지난 2023년 전 사업 부문에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에 따르면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8447억원, 영업이익은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2%, 73.6% 증가했다. 특히 베이커리 해외 사업은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진출 국가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CJ푸드빌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CJ푸드빌은 현재 7개국에 진출해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뚜레쥬르 인도네시아 매장 전경.

/CJ푸드빌

CJ푸드빌 미국 법인은 지난 2018년 CJ푸드빌 해외법인 중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6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미국 진출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79% 증가해 성장세를 보였다. CJ푸드빌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 상

승했다. 영업이익률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J푸드빌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땅그랑, 브카시, 반둥, 발리, 메단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 출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경기 둔화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CJ푸드빌은 흑자를 지켜냈다. CJ푸드빌은 프리미엄 베이커리 1등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B2B 및 O2O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구조 다각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CJ푸드빌은 빙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국내 외식 부문 또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CJ푸드빌에 따르면 외식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23.4%, 영업이익은 86.7% 늘었다. 브랜드 고급화, 진화한 브랜드 모델 확대 등이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CJ푸드빌 측의 설명이다.

빙스의 경우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스테이크&시즈널 셀러드바'라는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식 면 전문점인 '제일제면소'와 이탈리아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는 기존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진화한 브랜드 모델을 선보였다. 일품요리와 전통주를 강화한 '무교주가 제일제면소'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더플레이스'는 지난해 판교, 송도, 일산 등에서 신규 매장을 출점하며 진출 지역 확장에 나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모비스 피버스 합지훈 선수가 '그리팅 애슬릿' 전문 영양상담을 받는 모습. /현대백화점

## 현대그린푸드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맞춤형 케어푸드 솔루션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식품업계 처음으로 KBL 프로농구 구단의 전문 케어푸드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에 운동선수 전용 맞춤형 케어푸드 솔루션 '그리팅 애슬릿'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영양상담과 맞춤형 케어푸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대그린푸드가 처음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 애슬릿을 현대모비스 주장 합지훈 선수를 비롯해 선수 5명에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기간인 5월까지 3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2020년부터 단체급식 고객사 임직원에게 영양사의 전문 영양상담을 기반으로 저당·저칼로리·고단백 등 맞춤형 케어푸드 식단을 제공하는 단체급식 프로그램 '그리팅 오피스'도 운영 중에 있다.

그리팅 애슬릿은 전문 운동선수의 특성에 맞춰 영양상담 과정을 더욱 전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리팅 애슬릿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양상담 솔루션 '그리팅X'를 적용했다. 현대그린푸드 영양사가 선수 개인별 체성분 분석 결과와 영양상태·식습관·알레르기 등을 확인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선별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최빛나 기자

## 현대홈쇼핑, LVMH 뷰티 코리아와 맞손

이커머스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

현대홈쇼핑은 서울 종로구 LVMH 뷰티 코리아 본사에서 LVMH 뷰티 코리아와 이커머스 부문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체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VMH 뷰티 코리아는 프랑스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뷰티 계열사로 지방시, 베네피트 등 다수의 럭셔리 화장품·향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LVMH 뷰티 코리아의 주요 신상품을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고 현대H몰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고객을 위한 마케팅 차별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대홈쇼핑과 LVMH 뷰티 코리아는 현대H몰을 통해 ▲LVMH 뷰티 코리아 브랜드의 주요 신상품 단독 선공개 ▲단독 및 차별화 상품 개발·판매 ▲LVMH 뷰티 브랜드 대규모 기획전 진행 등 공동 프로모션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대H몰 구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상품을 함께 기획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홈플러스, MSC코리아어워즈 '리테일러상'

수산물 유통 활성화... 2년 연속 수상

홈플러스가 지속 가능한 수산물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3회 MSC 코리아 어워즈'에서 '올해의 리테일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MSC 인증은 해양 생태계 및 어종 보호,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 조업 과정 전반에 걸친 30여 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MSC '에코라벨' 제품은 지속 가능한 '착한 수산물'의 의미를 가진다.

홈플러스는 생활밀착형 유통사로서 MSC '에코라벨'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



루퍼스 하우스 해양관리협의회(MSC·왼쪽) CEO, 심완섭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올해의 리테일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빛나 기자